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6 주차 (8:44~9:7)

(2015년 5월 17일 - 2015년 5월 23일)

(제3권 17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5 월 1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이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주일)

### 오늘의 본문 (요 8:44~47)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 원문해석하기

- (44절) 당신들은 그 아버지, 즉 그 대적하는 자(사탄)로부터 존재했습니다  
(ὁμεῖς ἐκ τοῦ πατρὸς τοῦ διαβόλου ἐστὲ)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버지의 열심을 하려고 합니다  
(καὶ τὰς ἐπιθυμίας τοῦ πατρὸς ὑμῶν θέλετε ποιεῖν.)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ἐκεῖνος ἀνθρωποκτόνος ἦν ἀπ' ἀρχῆς)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서있지 않았습니니다 (καὶ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οὐκ ἔστηκεν.)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ἔστιν ἀλήθεια ἐν αὐτῷ.)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ὅταν λαλήῃ τὸ ψεῦδος.)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ἐκ τῶν ἰδίων λαλεῖ.)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ψεύστης ἐστὶν καὶ ὁ πατὴρ αὐτοῦ.)
- (45절) 그러나 내가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ἐγὼ δὲ ὅτι τὴν ἀλήθειαν λέγω.)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οὐ πιστεύετε μοι.)
- (46절) 당신들 중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지적할 것입니까? (τίς ἐξ ὑμῶν ἐλέγχει με περὶ ἁμαρτίας.)  
만약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εἰ ἀλήθειαν λέγω.)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인가요? (διὰ τί ὑμεῖς οὐ πιστεύετε μοι.)
- (47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ὁ ὢν ἐκ τοῦ θεοῦ τὰ ῥήματα τοῦ θεοῦ ἀκούει.)  
이런 이유로 당신들은 듣지 않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ὑμεῖς οὐκ ἀκούετε.)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κ τοῦ θεοῦ οὐκ ἐστὲ.)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6 절을 읽으십시오. 46 절은 가운데 조건절이 있고 앞 뒤로 수사적 질문이 있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당신들 중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지적할 것입니까? (τίς ἐξ ὑμῶν ἐλέγχει με περὶ ἁμαρτίας.)
- 만약 내가 진리를 말한다면 (εἰ ἀλήθειαν λέγω,)
-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인가요? (διὰ τί ὑμεῖς οὐ πιστεύετε μοι.)

예수께서 ‘만약’ (ε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확정적인 것이지요.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라고 번역한 것은 본래의 의도에 매우 가깝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마치 이 조건절이 두 번째 질문에만 해당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상이 조건절은 앞 뒤 질문 모두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여기서는 편의상 ‘만약’으로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지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기초한다면, 유대인들 중 누가 예수님이 죄를 짓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말합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왜곡없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죄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란 하늘의 뜻, 즉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죄이지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정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종교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고 들것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성문화된 규범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들것을 들고 가라고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규범을 의도적으로 어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들의 오랜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기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회 규범을 어긴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이나 초기 전도자들은 로마제국이 규정한 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극형을 무릎쓰고 법을 어겨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자국내에서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그 나라의 법을 어겨가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불법이었던 일이 오늘은 합법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70~80년대의 암울했던 시절에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한 분들이 최근에 다시 재판을 받아 그 누명을 벗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이 특정한 시대에 정해놓은 법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그 시대의 사고 체계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의 참 뜻을 왜곡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하늘의 뜻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누가 자기에 대해 죄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대한 질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사적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기반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질문은 유대인들을 향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본다면,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로 오신 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를 거부하고 정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앙 체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지식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신의 신앙 체계가 세워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체험을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번영 신학과 같이 성경과 정반대되는 잘못된 개념을 가르쳐도 그게 잘못됐다고 깨닫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옳게 여기며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결집되어 나타난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 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욕망인가요?

4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낸 자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극소수란 뜻이지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게는 수십 억 명 존재합니다. 교회의 형태도 다양해서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으며 그밖에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친교 목적으로, 또는 선한 일을 도모하려는 욕망을 갖고 교회로 몰려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즈음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다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위 모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잘 버무려서 소위 ‘내가 복음’을 만들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뒤집어 씌우기 또는 귀틀어 막기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48~59)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52.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 저희가 들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제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οὐ καλῶς λέγομεν ἡμεῖς ὅτι Σαμαρίτης εἶ σὺ καὶ δαιμόνιον ἔχεις;)
-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나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ἐγὼ δαιμόνιον οὐκ ἔχω.)  
오히려 내가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ἀλλὰ τιμ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경멸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ἀτιμάζετε με.)
- (50절)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ἐγὼ δὲ οὐ ζητῶ τὴν δόξαν μου·)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ἔστιν ὁ ζητῶν καὶ κρίνων.)
-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ἐάν τις τὸν ἐμὸν λόγον τηρήσῃ.)  
그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θάνατον οὐ μὴ θεωρήσ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지금 당신이 악한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νῦν ἐγνώκαμεν ὅτι δαιμόνιον ἔχεις.)

- 아브라함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었습니다 (Αβραάμ ὀπέθανεν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καὶ σὺ λέγεις·)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ἐάν τις τὸν λόγον μου τηρήσῃ·)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οὐ μὴ γεύσῃται θανάτου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3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보다 위대하지는 않지요? 누구이든 그는 죽었습니다  
 (μὴ σὺ μείζων εἶ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Αβραάμ, ὅστις ὀπέθανεν·)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ὀπέθανον·)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 주장합니까? (τίνα σεαυτὸν ποιεῖς·)
-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ἐὰν ἐγὼ δοξάσω ἑμαυτόν·)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ἡ δόξα μου οὐδέν ἐστιν·)  
 나를 영화롭게 한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ἔστιν ὁ πατήρ μου ὁ δοξάζων με·)  
 당신들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ὄν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θεὸς ἡμῶν ἐστιν·)
- (55절)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τε αὐτόν·)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δὲ οἶδα αὐτόν·)  
 만약 내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κἂν εἶπω ὅτι οὐκ οἶδα αὐτόν·)  
 나도 당신들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ἔσομαι ὁμοιος ὑμῖν ψεύστης·)  
 그러나 내가 그들 알고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지킵니다 (ἀλλὰ οἶδα αὐτόν καὶ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τηρῶ·)
- (56절) 당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자 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Αβραάμ ὁ πατήρ ὑμῶν ἠγαλλιάσατο ἵνα ἴδῃ τὴν ἡμέραν τὴν ἐμὴν·)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ἐχάρη·)
- (57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αὐτόν·)  
 당신이 아직 50살이 안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πεντήκοντα ἔτη οὐπω ἔχεις καὶ Αβραάμ ἐώρακας·)
-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있었습니다 (πρὶν Αβραάμ γενέσθαι ἐγὼ εἰμί·)
- (59절) 그들이 그에게 던지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ἤραν οὖν λίθους ἵνα βάλωσιν ἐπ’ αὐτόν·)  
 그러나 예수께서 숨겨졌고 성전으로부터 나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δὲ ἐκρύβη καὶ ἐξῆλθεν ἐκ τοῦ ἱερ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8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진리에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아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제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라며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정치인들이나 논리적으로 수세에 몰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주 못된 버릇 중에 ‘에드 호미넴 공격’(Ad Hominem attack)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상대방의 논지나 신념과는 무관한 상대의 캐릭터를 공격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사람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주장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사람입니다!” 이 한 마디 말로 논쟁은 끝이 납니다. 그 사람은 친북 인사가 되고 그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로 그 주장을 일거에 제압해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 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논리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는 엄중히 짚어가며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말도 안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첫째가 “당신은 사마리아 인입니다”라는 말이고 둘째가 “당신은 귀신들렸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인 예수의 신분이 사마리아 인이고 귀신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진리를 외치더라도 그 말은 전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는 뜻이지요.

사실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고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면 별로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전하는 그 사람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의 명성이 시원찮으면 이미 설득력을 상실합니다. 더 나아가 이름난 대형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라도 하면 ‘열등감에 사로 잡힌 괜한 트집잡기’라는 논리로 물타기를 하려고도 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그에 반하는 말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였기 때문이기도 한데다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출신 배경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의 귀는 열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밝아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한 가지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복음 그 자체보다는 이름있는 큰 교회에 다님으로써 누릴 수 있는 다른 유익이 있을 거라는 세상적인 계산은 없었는지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귀신들린 자’라고 비난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귀신들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도 이번 말고도 네 번에 걸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7:20, 8:48, 8:53, 10:20). 하지만 사마리아 인이라고 말한 것은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을 다 통틀어 이곳 한 군데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이는 아마도 예수님이 44 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

나라”(8:44)라고 질타한 말씀에 대한 속좁은 대응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거짓의 아들’이라면 예수 당신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비천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들린 자라고 말이지요.

4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경멸합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느니 귀신들린 자라느니 하며 경멸의 말로 매도하려 했지요. 우리도 진리를 전할 때 이런 악의에 찬 편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세상 가치에 뿌리를 내려 인본주의에 물이 들면 들수록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 소위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여지가 늘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운데 있는데도 세상이 당신의 말을 받기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찌면 당신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에 기반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 꼼꼼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48~59)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52.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 저희가 들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제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οὐ καλῶς λέγομεν ἡμεῖς ὅτι Σαμαρίτης εἶ σὺ καὶ δαιμόνιον ἔχεις;)
-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나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ἐγὼ δαιμόνιον οὐκ ἔχω.)  
오히려 내가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ἀλλὰ τιμ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경멸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ἀτιμάζετε με.)
- (50절)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ἐγὼ δὲ οὐ ζητῶ τὴν δόξαν μου·)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ἔστιν ὁ ζητῶν καὶ κρίνων.)
-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ἐάν τις τὸν ἐμὸν λόγον τηρήσῃ.)  
그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θάνατον οὐ μὴ θεωρήσ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지금 당신이 악한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νῦν ἐγνώκαμεν ὅτι δαιμόνιον ἔχεις.)

- 아브라함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었습니다 (Αβραάμ ὀπέθανεν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καὶ σὺ λέγεις·)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ἐάν τις τὸν λόγον μου τηρήσῃ·)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οὐ μὴ γεύσῃται θανάτου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3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보다 위대하지는 않지요? 누구이든 그는 죽었습니다  
 (μὴ σὺ μείζων εἶ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Αβραάμ, ὅστις ὀπέθανεν·)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ὀπέθανον·)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 주장합니까? (τίνα σεαυτὸν ποιεῖς·)
-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ἐὰν ἐγὼ δοξάσω ἑμαυτόν·)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ἡ δόξα μου οὐδέν ἐστιν·)  
 나를 영화롭게 한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ἔστιν ὁ πατήρ μου ὁ δοξάζων με·)  
 당신들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ὄν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θεὸς ἡμῶν ἐστιν·)
- (55절)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τε αὐτόν·)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δὲ οἶδα αὐτόν·)  
 만약 내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κἂν εἶπω ὅτι οὐκ οἶδα αὐτόν·)  
 나도 당신들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ἔσομαι ὁμοιος ὑμῖν ψεύστης·)  
 그러나 내가 그들 알고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지킵니다 (ἀλλὰ οἶδα αὐτόν καὶ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τηρῶ.)
- (56절) 당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자 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Αβραάμ ὁ πατήρ ὑμῶν ἠγαλλιάσατο ἵνα ἴδῃ τὴν ἡμέραν τὴν ἐμὴν·)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ἐχάρη·)
- (57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αὐτόν·)  
 당신이 아직 50살이 안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πεντήκοντα ἔτη οὐπω ἔχεις καὶ Αβραάμ ἐώρακας·)
-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있었습니다 (πρὶν Αβραάμ γενέσθαι ἐγὼ εἰμί·)
- (59절) 그들이 그에게 던지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ἤραν οὖν λίθους ἵνα βάλωσιν ἐπ’ αὐτόν·)  
 그러나 예수께서 숨겨졌고 성전으로부터 나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δὲ ἐκρύβη καὶ ἐξῆλθεν ἐκ τοῦ ἱερ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0-5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  
 에게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구하고 판단을 하시는 분은 예수  
 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  
 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지요. 그러  
 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왜곡됨 없이 그

대로 인식되고 이해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빛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으로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영생에 이르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51절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들의 영생과 맞물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의 영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는 자들의 영생이라는 둘 사이를 이어 주는 연결 고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연결 고리가 바로 “나의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그것이 가능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킨다’는 말을 ‘행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행한다는 말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그 말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구현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알아온 대로 예수님의 말을 법으로 알아 그 말을 어기지 않고 지키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테레오’(τερέω)로 그 뜻은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거나 보존하다’ 등인데 여기에서는 ‘주목하다, 관찰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면’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몸소 행하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의미를 잘 살피서 진리를 알게 된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전에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덕분에 운택한 삶을 누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여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온통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그 일에 힘을 쏟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무엇인가 성취해 내려거나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요. 잠깐 시간을 내어 자신의 신앙관에 대해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52~53절을 읽으십시오.

“지금 당신이 악한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지는 않지요? 누구이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 주장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유명한] 선지자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것 같지 않은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영생을 말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 없거니와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누구나 죽는다’는 그 말은 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새롭게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영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sup>12</sup>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sup>13</sup>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sup>14</sup>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sup>15</sup>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sup>16</sup>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sup>17</sup>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sup>18</sup>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sup>19</sup>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15:12-19).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부활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그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하늘의 일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땅의 이치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예수님의 변명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48~59)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52.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 저희가 들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제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οὐ καλῶς λέγομεν ἡμεῖς ὅτι Σαμαρίτης εἶ σὺ καὶ δαιμόνιον ἔχεις;)
-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나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ἐγὼ δαιμόνιον οὐκ ἔχω.)  
오히려 내가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ἀλλὰ τιμ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경멸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ἀτιμάζετε με.)
- (50절)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ἐγὼ δὲ οὐ ζητῶ τὴν δόξαν μου·)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ἔστιν ὁ ζητῶν καὶ κρίνων.)
-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ἐάν τις τὸν ἐμὸν λόγον τηρήσῃ.)  
그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θάνατον οὐ μὴ θεωρήσ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지금 당신이 악한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νῦν ἐγνώκαμεν ὅτι δαιμόνιον ἔχεις.)

- 아브라함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었습니다 (Αβραάμ ὀπέθανεν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καὶ σὺ λέγεις·)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ἐάν τις τὸν λόγον μου τηρήσῃ·)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οὐ μὴ γεύσῃται θανάτου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3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보다 위대하지는 않지요? 누구이든 그는 죽었습니다  
 (μὴ σὺ μείζων εἶ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Αβραάμ, ὅστις ὀπέθανεν·)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ὀπέθανον·)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 주장합니까? (τίνα σεαυτὸν ποιεῖς·)
-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ἐὰν ἐγὼ δοξάσω ἑμαυτόν·)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ἡ δόξα μου οὐδέν ἐστιν·)  
 나를 영화롭게 한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ἔστιν ὁ πατήρ μου ὁ δοξάζων με·)  
 당신들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ὄν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θεὸς ἡμῶν ἐστιν·)
- (55절)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τε αὐτόν·)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δὲ οἶδα αὐτόν·)  
 만약 내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κἂν εἶπω ὅτι οὐκ οἶδα αὐτόν·)  
 나도 당신들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ἔσομαι ὁμοίος ὑμῖν ψεύστης·)  
 그러나 내가 그들 알고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지킵니다 (ἀλλὰ οἶδα αὐτόν καὶ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τηρῶ·)
- (56절) 당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자 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Αβραάμ ὁ πατήρ ὑμῶν ἠγαλλιάσατο ἵνα ἴδῃ τὴν ἡμέραν τὴν ἐμὴν·)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ἐχάρη·)
- (57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αὐτόν·)  
 당신이 아직 50살이 안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πεντήκοντα ἔτη οὐπω ἔχεις καὶ Αβραάμ ἐώρακας·)
-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있었습니다 (πρὶν Αβραάμ γενέσθαι ἐγὼ εἰμί·)
- (59절) 그들이 그에게 던지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ἤραν οὖν λίθους ἵνα βάλωσιν ἐπ’ αὐτόν·)  
 그러나 예수께서 숨겨졌고 성전으로부터 나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δὲ ἐκρύβη καὶ ἐξῆλθεν ἐκ τοῦ ἱερ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4-56 절을 읽으십시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 주장합니까?”(8:53)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를 영화롭게 한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분은 당신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도 당신들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알고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지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자 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나는 구원자입니다” 등등 수많은 단어로 자신을 분명하게 설명하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알아듣기 힘든 말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는 의도로 빙빙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굳게 믿기에 예수가지금 하고 있는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말씀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칭한 신성 모독죄에다 알팍한 눈속임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리 종교 사기꾼이라는 죄목으로 그를 잡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고 설명하고 계신지 하나 하나 살펴가다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두 번 모두가정법(ἕξις, 예안)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한 적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나는 결코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시다.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온 사람’ 또는 ‘위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그 영광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6-11).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보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지 않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이 계시되고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련의 무리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진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도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이 뿌리가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는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 동시에 자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만약 내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자신과 논쟁을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 ‘거짓말쟁이’라는 등식을 또 다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거짓’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리인 것이며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결음 더 나가십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자 하여 즐거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임을 밝힘으로써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숙제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과 자신들 중 누구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진리에 속하지 못한 그룹이 되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은 과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 8:48~59)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52.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 저희가 들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제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οὐ καλῶς λέγομεν ἡμεῖς ὅτι Σαμαρίτης εἶ σὺ καὶ δαιμόνιον ἔχεις;)
-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나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ἐγὼ δαιμόνιον οὐκ ἔχω.)  
오히려 내가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ἀλλὰ τιμ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경멸합니다 (καὶ ὑμεῖς ἀτιμάζετε με.)
- (50절)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ἐγὼ δὲ οὐ ζητῶ τὴν δόξαν μου·)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ἔστιν ὁ ζητῶν καὶ κρίνων.)
-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ἐάν τις τὸν ἐμὸν λόγον τηρήσῃ.)  
그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θάνατον οὐ μὴ θεωρήσῃ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οἱ Ἰουδαῖοι·)  
지금 당신이 악한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νῦν ἐγνώκαμεν ὅτι δαιμόνιον ἔχεις.)

- 아브라함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었습니다 (Αβραάμ ὀπέθανεν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καὶ σὺ λέγεις·)  
 만약 누구든지 나의 말을 지키면 (ἐάν τις τὸν λόγον μου τηρήσῃ·)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οὐ μὴ γεύσῃται θανάτου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 (53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보다 위대하지는 않지요? 누구이든 그는 죽었습니다  
 (μὴ σὺ μείζων εἶ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Αβραάμ, ὅστις ὀπέθανεν·)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ὀπέθανον·)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 주장합니까? (τίνα σεαυτὸν ποιεῖς·)
-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ἐὰν ἐγὼ δοξάσω ἑμαυτόν·)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ἡ δόξα μου οὐδέν ἐστιν·)  
 나를 영화롭게 한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ἔστιν ὁ πατήρ μου ὁ δοξάζων με·)  
 당신들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ὄν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θεὸς ἡμῶν ἐστιν·)
- (55절)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τε αὐτόν·)  
 그러나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δὲ οἶδα αὐτόν·)  
 만약 내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면 (κἂν εἶπω ὅτι οὐκ οἶδα αὐτόν·)  
 나도 당신들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ἔσομαι ὁμοιος ὑμῖν ψεύστης·)  
 그러나 내가 그들 알고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을 지킵니다 (ἀλλὰ οἶδα αὐτόν καὶ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τηρῶ.)
- (56절) 당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고자 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Αβραάμ ὁ πατήρ ὑμῶν ἠγαλλιάσατο ἵνα ἴδῃ τὴν ἡμέραν τὴν ἐμὴν·)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습니다 (καὶ εἶδεν καὶ ἐχάρη·)
- (57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αὐτόν·)  
 당신이 아직 50살이 안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πεντήκοντα ἔτη οὐπω ἔχεις καὶ Αβραάμ ἐώρακας·)
-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Ἰησοῦς·)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있었습니다 (πρὶν Αβραάμ γενέσθαι ἐγὼ εἰμί·)
- (59절) 그들이 그에게 던지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ἤραν οὖν λίθους ἵνα βάλωσιν ἐπ’ αὐτόν·)  
 그러나 예수께서 숨겨졌고 성전으로부터 나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δὲ ἐκρύβη καὶ ἐξῆλθεν ἐκ τοῦ ἱερ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7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당신이 아직 50 살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답답해 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논쟁 과정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곁 어디엔가에 있었을 지도 모를 제자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되심에 대한 변증서라는 사실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의문투성이인 도전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56 절),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고, 이 논쟁은 4세기말까지 지리하게 이어집니다.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집사였던 아타나시우스(나중에 주교가 됨)와 아리우스스 간의 치열했던 논쟁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구원자 되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니 의견이 분분한 정도가 아니라 그문제를 놓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믿는 자들의 대표격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수차례에 걸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가 유배를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으로만 여기는 주장이 교회 전체에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의 주장이 교회 전체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사활을 건 지리한 논쟁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0여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런 논쟁이 치열하게 계속되었는데 하물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셨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논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sup>2</sup>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sup>3</sup>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4:1-3).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차 있는 사람들일수록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는 ‘하늘로부터 온 자’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58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논리로 예수님께 반박을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췌기를 박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언적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대개 논쟁의 시작 시점이나 마무리 시점에 선포되는데 여기서는 논쟁의 마무리 시점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끝까지

지 말로 그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기적이나 표적을 사용하여 그들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우기다시피(?)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을까요?

59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에 너무 화가 났던 것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존중하는 믿음의 조상인데 갈릴리에서 온 목수 출신의 일개 랍비가 그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좋은 표현, 우회적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보아도 돌을 맞을만한 말로 유대인들을 격분시키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왜 이런 태도를 견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숨겨졌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크루베’(ἐκρύβη)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 ‘크립토’(κρύπτω)의 aorist (주로 과거, 행위 종료)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 장 42 절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ἐκρύβη)” (눅 19:42)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논쟁하던 유대인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도,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누구의 죄입니까?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 9:1~7)

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면서부터 장님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Καὶ παρόγων εἶδεν ἄνθρωπον τυφλὸν ἐκ γενετῆς.)
- (2절) 그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λέγοντες·)  
랍비여! 누구 죄입니까? (ῥαββί, τίς ἥμαρτεν,)  
그입니까? 또는 그의 부모입니까? (οὗτος ἢ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그 결과 장님이 되었습니까? (ἵνα τυφλὸς γεννηθῆι;)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그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다 (οὔτε οὗτος ἥμαρτεν οὔτε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오히려 그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 (ἀλλ' ἵνα φανερωθῆι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ἐν αὐτῷ.)
-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ἡμᾶς δεῖ ἐργάζεσθαι τὰ ἔργ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낮 동안에는 (ἕως ἡμέρας ἐστίν·)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 (ἔρχεται νύξ ὅτε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ἐργάζεσθαι.)
-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ὅταν ἐν τῷ κόσμῳ ᾶ,)  
나는 세상의 빛이다 (φῶς εἰμι τοῦ κόσμου.)
- (6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침을 땅에 뱉으셨습니다 (ταῦτα εἰπὼν ἔπτυσεν χαμαὶ)  
그리고 그 침으로부터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καὶ ἐποίησεν πηλὸν ἐκ τοῦ πτύσματος)  
그리고 그의 눈위에 그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καὶ ἐπέχρισεν αὐτοῦ τὸν πηλὸν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 (7절)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떠나라 실로암의 연못으로 [그리고] 씻으라 (ὑπάγε νύμφα εἰς τὴν κολυμβήθραν τοῦ Σιλωάμ)  
(이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번역됩니다) (ὁ ἐρμηνεύεται ἀπεσταλμένος).  
그래서 그가 떠났고, 씻었으며,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ἀπῆλθεν οὖν καὶ ἐνίψατο καὶ ἦλθεν βλέπω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이 사건은 초막절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 안여인의 뜰에서 횃불을 피워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여전히 초막절 축제에 참가하고 계셨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한 청년을 고친 사건은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매우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빛이란 단순히 세상을 비추는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물을 분별하게 해 주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며, 올바른 진리로 이끌어 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빛의 축제를 통해 자신들을 광야사십 년 동안 인도한 그 빛을 기념하는 의식을 행했지만 정작 그 빛의 실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의 축제가 열리는 초막절 기간에 진정한 빛의 의미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 하신 것이지요.

1~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랍비여!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해] 그가 장님이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걸어가 시던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을 미루어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 어딘가를 걷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된 이 남자는 이날 우연히 예수님 일행을 만난 것이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필연인 것이지요. 빛의 축제 기간 동안 나면서부터 단 한 점의 빛조차도 볼 수 없었던 한 남자에게 빛을 주기 위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고, 고침을 받아야 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누구의 죄입니까? 그입니까? 또는 그의 부모입니까? [누구 죄의 결과로] 그가 장님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죄와 고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유대 사회의 세계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비롯한 근동 지방에서는 고난이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세계관으로 이 청년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간들에게 고난을 내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스여인을 취한 모세를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립니다(민 12장). 물론 아담도 자신의 죄로 인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내려진 그 벌은 모든 인류에게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 왔습니다. 이로 보건데 제자들이 부모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를 묻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타당하다면 이 가엾은 청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D.A. Carson, 362).

이러한 믿음에 바탕을 둔 신앙을 우리는 인과응보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욥에게 추궁하다시피 던진 말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합니다. 욥의 친구들 중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지요.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나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나 <sup>7</sup>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sup>8</sup> 내가 보건대 악을 받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sup>9</sup>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 4:6-9).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논리는 명료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의롭게 보였던 욥이 알고 보니 큰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인과응보적 신앙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고난이 계속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생각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적 신앙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구의 죄든 이 청년이 죄로 인해 장님이 되었다면 이런 심판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지기에 그분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설령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죄로 인해 인간들이 받아야 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에 우리에게서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추가로 요구할 것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인과응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철저히 비성경적이며 비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장님됨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지 결코 어떤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여전히 징계를 내리신다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11절 말씀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sup>8</sup>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sup>9</sup>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sup>10</sup>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sup>11</sup>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 12:7-11).

위 히브리서 말씀에서 징계로 번역된 ‘파이데이아’(παιδεία)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말은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누구나 겪는 삶 속에서의 일반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란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극심한 환란을 피할 수 없는 훈련 과정으로 본 것이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훈련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겪는 삶의 고난을 죄로 인한 심판으로 생각한 적은 없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과응보적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 9:1~7)

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그리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면서부터 장님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Καὶ παρόγων εἶδεν ἄνθρωπον τυφλὸν ἐκ γενετῆς.)
- (2절) 그의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λέγοντες·)  
랍비여! 누구 죄입니까? (ῥαββί, τίς ἥμαρτεν.)  
그 입니까? 또는 그의 부모입니까? (οὗτος ἢ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그 결과 장님이 되었습니까? (ἵνα τυφλὸς γεννηθῆι.)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그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다 (οὔτε οὗτος ἥμαρτεν οὔτε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오히려 그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 (ἀλλ' ἵνα φανερωθῆι τὰ ἔργα τοῦ θεοῦ ἐν αὐτῷ.)
-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ἡμᾶς δεῖ ἐργάζεσθαι τὰ ἔργ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낮 동안에는 (ἕως ἡμέρας ἐστίν·)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 (ἔρχεται νύξ ὅτε οὐδεὶς δύναται ἐργάζεσθαι.)
-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ὅταν ἐν τῷ κόσμῳ ᾶ.)  
나는 세상의 빛이다 (φῶς εἰμι τοῦ κόσμου.)
- (6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침을 땅에 뱉으셨습니다 (ταῦτα εἰπὼν ἔπτυσεν χαμᾶι)  
그리고 그 침으로부터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καὶ ἐποίησεν πηλὸν ἐκ τοῦ πτύσματος)  
그리고 그의 눈위에 그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καὶ ἐπέχρισεν αὐτοῦ τὸν πηλὸν ἐπὶ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 (7절)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떠나라 실로암의 연못으로 [그리고] 씻으라 (ὑπάγε νύμει εἰς τὴν κολυμβήθραν τοῦ Σιλωάμ)  
(이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번역됩니다) (ὁ ἐρμηνεύεται ἀπεσταλμένος.)  
그래서 그가 떠났고, 씻었으며,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ἀπῆλθεν οὖν καὶ ἐνίμωτο καὶ ἦλθεν βλέπω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 의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 이 대답은 듣기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비판하거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셨기에 인간의 고난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실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즉, 죄와 고난이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 1장 1절~8절을 읽어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sup>2</sup>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sup>3</sup>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sup>4</sup>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sup>5</sup>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sup>6</sup>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sup>7</sup>매년에 한나가 여호와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sup>8</sup>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삼상1:1-8).

위 말씀을 읽어 보면 한나는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라이벌인 브닌나가 늘 한나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극진히 사랑했지만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가나의 집에는 평화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누가 한나에게 아이를 못 갖게 하였나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이토록 평강이 없고 늘 고통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지요. 이 성경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왜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 자신도, 엘가나나 브닌나 심지어 제사장 엘리까지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인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움직여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들이 직면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질문을 던지고 심각하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뜻밖의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을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2절~4절을 읽으십시오,

“<sup>2</sup>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sup>3</sup>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sup>4</sup>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위 본문을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up>2</sup> Πᾶσαν χαρὰν ἠγήσασθε.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ἀδελφοί μου, (나의 형제들아)

ὅταν πειρασμοῖς περιπέσητε ποικίλοις, (여러가지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언제나)

<sup>3</sup> γινώσκοντες ὅτι τὸ δοκίμιον ὑμῶν τῆς πίστεως καταργάζεται ὑπομονήν.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생산해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sup>4</sup> ἢ δὲ ὑπομονὴ ἔργον τέλειον ἔχέτω. (인내가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해라!)

ἵνα ᾗτε τέλειοι καὶ ὀλόκληροὶ ἐν μηδενὶ λεπτόμενοι

(그 결과 당신이 온전하고 완성되어 조금도 필요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본문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다는 아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드디어 이런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라는 것입니까? 나의 삶이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폴무불에서 금은을 제련을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글거리는 폴무 속에 내 인생이 쳐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내 인생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함정처럼 놓여 있는데 거기에 풍덩 빠져버린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것을 비켜 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큰 시련이 찾아 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제련을 위해 폴무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군데 군데 피할 수 없는 함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그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배우자도 잘 만나 잘들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우리자식들은 남들 처럼 정상적인 길을 가지 않고 늘 일탈만 하는 거지? 늪으막에 이 무슨 고생인가? 등등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고통을 당할 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즐겁게 맞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인내가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하라”입니다. 이 명령문의 주어는 인내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인내가 완성되도록 나는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황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상황을 피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상

항아래 있되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더 이상 괴로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통증을 느끼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늘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만 이지경인가?라는 자괴감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지 그게 왜 이리 힘든 건지 묵상해 보고 메모해 보십시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